

# CCM MISSION

김태한(안양대 기독교 문화학과 겸임교수, 꿈이룬 교회 목사)

기독교 음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 음악은 세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옷을 입어 왔고 또한 입어가고 있다. 그러나 음악적 장르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에 고백일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의 표현들을 한 단어로 압축해보라고 하면 아마도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CCM의 장르적 이해나 역사적인 이해보다 의미적 이해에 그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CCM에 대한 이해와 선교지향적 관점에서의 CCM을 재해석하고 실천적 관점을 조명해보겠다. 그 다음으로 CCM 사역의 대안과 찬양 사역자와 그 사역에 대해 함께 고찰해보겠다.

## 1)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CCM에 대한 이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종종 실험적인 강의를 진행 할 때가 많다. 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이신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했다. 하나는 앞에 있는 학생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학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 본적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선형적 구조, 또는 선형적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되어진 예수그리스도와 경험되어지지 않은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선형의 환경은 지역적 세대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역과 구조적 질서가 다른 북한이라면 같은 의미이더라도 그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 “괜찮다”를 북한에서는 “일없다”로 표현을 하고 “냉주수”를 “찬단물”로 표현을 한다. 아울러 세대적 대상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기성세대와 차이가 많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청소년 은어 사전을 등록해 둘 정도이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에 대해 지역 간, 세대 간 대상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은 그 서술의 대상이 헬라인들이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말씀을 로고스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로고스는 히브리적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 헬라철학의 최고봉인 로고스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준, 절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의 사상적 관점의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더라도 잘 알듯이 바울도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표현 방식이 약간씩 다름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보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 의사전달 대상에 따라 또는 문화 환경에 따라 세대에 따라 의사전달 표현 방식이 달라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사회 공동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공동체가 존속되고 유지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가정에서도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정일수록 문제가 적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밝혀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이 많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이유는 대화의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과 건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호적 눈높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문화적 이해를 갖고, 자녀들의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고 자녀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언어는 단순한 말을 넘어서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의 아버님은 칠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관계로 대화를 주로 문자로 하신다. 그것도 “아들 바쁘삼”, “아버지 요즘 넘 바쁨”, “아들 오늘 번개 할까” 등등. 요즘 은어로 문자를 보내신다. 이런 아버지를 본인은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존경한다. 그렇다. 언어는 말을 넘어서 공유되고 표현되어야 보다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로만 교류되는 것이 아니다. 상담학에서도 보통 언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말을 통한 언어와 비언어 즉, 말 이외의 모든 양식을 언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다. 하나는 말을 통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언어적 요소(웃, 행동, 노래 등등)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말은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아도 비언어적 요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악수를 하면, 눈을 보면 동공의 움직임, 눈의 떨림등이 언어와 비언어를 통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이라는 도구도 “언어적 도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음악이라는 언어는 시대적, 세대적, 지역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되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앞에서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찬송의 정의는 무엇일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이해해보면, 특별히 모세에게 이 노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바 젃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명기 31/14-23)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깊게 생각해볼 것은 음악, 노래를 성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그 존재 목적인 노래,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 하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그 노래를 말씀하시면서도 규정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적 장르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규정하지 않은 언어로, 다양한 음악으로 각 대상에 맞게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장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본질이라면 율법처럼 분명한 규정을 두어서 음악을 가려서 사용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낯선 음악적 장르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배 때에 사용하는 찬송가 중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루터가 만든 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루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표현은 루터 당시에 대중가요의 음율을 사용해서 시편의 가사를 붙인 것이다. 당시 술집에서 불리던 대중음악의 음율에 시편 말씀을 붙여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생활화 되도록 만든 것이었다. 루터 시대에는 분명 대중음악이었던 세속음악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예배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루터가 세속음악을 사용하여 찬송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카톨릭의 폐쇄적인 복음 주권에 대해 만인이 그 복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불가타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음악으로 복음을 담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손들이 잊지 아니할 노래”로 부르게 한 것이다.

## 2) 선교지향적 관점에서의 CCM.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 존재 그 자체로 보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의 언어와 문화 양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이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하신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각 시대 각 대상,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우리는 보통 선교를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면서 선교하면 해외 선교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모든 족속으로, 즉 대상은 정해 주셨어도, 장소는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라는 것은 지역적 개념의 해외선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은 대상이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족속, 즉 Not yet christian, No more christian.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비신자에게는 그들이 공유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CCM은 복음을 담아내는 커뮤니케이션이요, 언어요 도구라는 것이다.

### 3) CCM의 바른 대안

이러한 선교지향적인 관점으로 볼 때 CCM은 교회내적사역과 교회외적사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찬양사역자도 전략적으로 **교회내적 CCM 사역을 담당하는 전문 사역자와, 교회 외적 CCM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선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교회 내적으로는 각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에 따라 복음을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으로 느끼며 내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CCM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외적인 CCM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는 보다 더 거시적 관점으로서의 선교의 토양화 작업을 감당할 선교 사역자를 길러내서 파송해야 할 것이다. 즉 “NOT YET CHRISTIAN”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담아내어 함께 호흡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양성, 파송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CROSS OVER 사역을 담당해야할 사역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일반 가수를 통한 선교 지향적 CCM 음악이 시도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윤항기 목사 작사, 작곡. 윤복희씨가 부른 “여러분” 그 여러분의 본래 의도에 대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의 서태지씨가 CCM 선교를 가슴에 품은, 파송된 선교사였으면 했다.

그렇다. 현대 선교는 전략적 선교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된 사역자가 전략적 사역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대선교는 네트워크 선교가 되어야 한다. 비거주 선교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비거주 선교사는 개인이지만 비거주 선교사역은 각 선교단체와 교회와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상호 네트워크 사역을 공유하여 사역적 시너지(Synergy)를 높이는 사역이 네트워크 선교이다.

이처럼 교회 외적 사역으로서의 CCM 사역은

- 1)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 이어야 하고
- 2) 신학적 훈련이 된 사역자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아울러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단적, 대형교회 차원에서 양육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 4) 또한 교계가 공식화한 CCM 선교사를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역적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 (Supporters, 홍보요원, 관리요원 등등.....)
- 5) 그리고 CCM 사역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속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 찬양 사역자와 사역

구약에도 성막을 관장하는 사람은 레위인들 이었고,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음악을 관장하는 레위인들이 세워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처럼 찬양을 사역으로 전임하는 사역자들 또한 사역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신학과 음악적 전문성을 길러야 하고 사역자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도 음악을 관장하는 사역자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새롭게 가져서 교회 내적 CCM 사역자와 선교지향적인 사역을 감당할 교회 외적 CCM 선교사역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고 거시적 사역에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각 교단도 음악전문 목회자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되 교회 내적 사역자와 교회 외적, 선교 지향적 사역을 감당할 CCM 선교사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훈련하여 파송 관리해야 할 것이다.